

### A-3 비심미적 치은착색의 제거 : Gingivectomy knife vs Laser

이은숙\*,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은의 멜라닌 착색은 병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침착된 경우 심미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멜라닌은 melanocyte에 의해 생성되며 이 세포는 구강 상피에 존재하는 비각화세포로서 대개 기저세포층에 존재하고 멜라닌을 만들어 각화세포내로 주입을 하는데 착색의 정도는 세포수와 관련이 없고 세포의 멜라닌 생성 능력에 의한다.

본 증례는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로 하면서 주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의 한 예이며 과도한 치은의 멜라닌 색소침착에 의한 비심미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있어 이용 가능한 방법인 전통적인 gingivectomy knife와 Laser를 출혈, 수술 도중이나 후의 환자의 동통 인지도 (마취의 필요성), 시술시간, 치유 과정 (3일, 1,2,3,4주), 예후 등에 관하여 비교한 것이다.

1960년대 처음 Laser가 개발된 이후 1980년대 중반 우수한 지혈효과 때문에 치주치료에 도입되었다. 이후 여러 연조직 수술과 백반증, 포진성 병소, 인공매식치의 노출, 임상치관 연장술, 지각과민치의 처치, 치은정형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지혈효과, 술후 종창 및 동통 감소, 술후 감염 감소 등의 장점이 제시되고 있다.

#### 증례 1

이름 : 고 ○ ○

성별/나이 : 남자/24세

주소 : 상하악 전치부의 치은 착색

치료술식 : 상악 → Nd:YAG laser

하악 → Gingivectomy knife 이용

#### 증례 2

이름 : 전 ○ ○

성별/나이 : 남자/29세

주소 : 상하악 전치부의 치은 착색

치료술식 : 상악 → Gingivectomy knife 이용

하악 → Nd:YAG laser